

참조. [향린 새해 소망기도]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 새해에도 향기로운 이웃 되게 하소서.”

#1. “하나님나라를 향한 우직한 발걸음으로”

이 땅 한반도에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더욱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에 예민하게 하소서.

70여년이 넘도록 메아리치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이 오늘도 무겁습니다. 권리를 빼앗겨 아우성치는 소리, 한 맺힌 절규가 그치지 않고 하늘을 진동합니다.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이들의 인권선언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새해에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낮은 자리 그곳은 주님께서 계신 곳, 이웃의 고통당하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새해 되게 하소서.

평화와 상생을 위하여 소수자들, 약자들과 연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땅 위의 향기로운 이웃 되게 하소서.

#2. “향린공동체, 하나님 나라 바로 여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향린 공동체를 사랑해주시는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과 덕을 연단케 하셨으니,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 친히 활동하시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용납하는 마음과 깊은 배려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공회 안에서 맡겨진 청지기 사명에 성심을 다하고, 열성과 기쁜 마음으로, 거짓없는 헌신으로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서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면서 광화문 새 터전의 새 희망을 함께 일구어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 새해에는 미래세대의 장을 열어주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소서.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미래세대들과 행복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청년세대들과 한 꿈을 같이 꾸는 향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세워주면서 희망과 기쁨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하소서.

히브리 민중의 가슴을 울리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체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 안에 조금 더 깊이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소서.

그 신앙의 힘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에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시대의 요청인 ‘생태적 전환’에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타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충족해온 인류의 욕구와 편의주의를 깊이 반성하며, 작은 실천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상생 공존하는 길을 나로부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새해에 저희의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